

## | 교회 및 교우 소식 |

1. 한사랑교회 주일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이번 주일예배(4/27)는 호프교회 행사 관계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예배 준비팀은 오후 2시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음 주일에는 “\$1의 행복”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4. 이사(4월 26일, 토요일): 주경숙 집사(써리 클레이튼 → 랭리 월로비)
5. 임시 공동의회(예고): 5월 11일 주일예배 후 본당
6. 청년부 & 청소년부 연합예배: 이번 주일(4/27) 오후 5시 30분, Fireside room
7. 김관성 목사(울산 낮은담교회) 초청 부흥회: 4월 29-30일(화수) 저녁 7시, 주빌리교회당
8. 전교인 나나이모 원주민 선교: 7월 4-6일(금-주일), 나나이모 중앙교회(조혁준 목사)
9. 출타성도: 이호영

대표기도 : 5/4 봉은미 5/11 온세대예배 5/18 안혜숙 5/25 오종길

## | 지난 주 헌금 |

|         |                                                                  |                   |
|---------|------------------------------------------------------------------|-------------------|
| 주일헌금    | 2, 5, 7, 24, 29, 41, 42, 52, 53, 54, 55, 60, 71, 72, 74, 78, 신나리 | \$618.00          |
| 십일조     | 17, 42, 51, 55                                                   | \$750.00          |
| \$1의 행복 |                                                                  |                   |
| 부활감사    | 2, 3, 10, 15, 16, 17, 22, 23, 29, 41, 42, 50, 55, 68, 72         | \$1,130.00        |
| 선교헌금    | 60                                                               | \$20.00           |
| 총계      |                                                                  | <b>\$2,518.00</b> |

### 헌금 interac e-Transfer 방법

\*Recipient Name : “Vancouver Hansarang Church”

\*Recipient E mail : vhc20100101@gmail.com

\*Amount : 헌금액 \*Message : 헌금 종류, 헌금 번호, 기타 내용

## | 4월 사역 안내 |

#홀리스사역: 4월 2, 16일 첫째, 셋째 수요일 저녁 5:45-7:45  
#Good Friday 연합예배: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Horizon Church  
#부활주일(Easter Sunday): 4월 20일 주일, 성찬예식과 만찬이 있습니다.  
#부흥회준비 연합기도회: 4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주빌리교회 2층 예배실  
#청년부&청소년부 연합예배(Youth Worship): 4월 27일 주일 오후 5:30, Fireside room  
#김관성 목사(울산 낮은담교회) 초청 부흥회: 4월 29-30일(화수) 저녁 7시, 주빌리교회당

## |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신용규 목사 / 청년부: 신용규 목사 / Youth: 김성민 목사 / 어린이부: 임선미 사모  
행정: 서지민 집사 / 찬양: 이호영 전도사 / 반주: 박난주 사모

제17권 17호 2025년 4월 27일



www.hansarang.ca  
18625 Fraser Hwy Surrey, B.C  
담임목사 신용규 604 861 2175

| 오후 2시   |                   | 인도 신용규 목사 |
|---------|-------------------|-----------|
| 예배로의 부름 |                   | 인도자       |
| 경배와 찬양  |                   | 찬양팀       |
| *입례찬양   | 하늘의 문을 여소서        | 다같이       |
| 대표기도    |                   | 박효순 권사    |
| 성경봉독    | 누가복음 15장 25-32절   | 다같이       |
| 설교      | <b>잃어버린 첫째 아들</b> | 신용규 목사    |
| 합심기도    |                   | 다같이       |
| 축도      |                   | 신용규 목사    |
| 광고      |                   | 인도자       |
| *파송찬양   | 마라나타              | 다같이       |

\*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We dream of **true revival** and life transformation in our times.  
We want to see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come to know  
and worship God through a **new generation**.

|                                                                 |                                                                               |                                                 |
|-----------------------------------------------------------------|-------------------------------------------------------------------------------|-------------------------------------------------|
| <b>새벽기도회</b><br>화~금 아침 6시<br>교회 1층 Fireside room<br>온라인 줌(Zoom) | <b>어린이부 예배</b><br><b>청소년부 예배</b><br>주일 오후 2시<br><b>청년부 모임</b><br>주일 오후 3시 30분 | <b>금요기도회</b><br>둘째 넷째주 금요일 저녁 8시<br>온라인 줌(Zoom) |
|-----------------------------------------------------------------|-------------------------------------------------------------------------------|-------------------------------------------------|

## | 목회 칼럼 |

##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준비를 시작하며 강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선호하는 강사 스타일이 전부 다르고, 또 모두가 원하는 강사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강사와 시간이 맞아도 그 날에 공간을 대여하는 일은 또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며 고심하던 중에 마침 한국에서 집회 강사로 잘 알려진 김관성 목사님께서 이 시기에 미국 씨애틀에 집회차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강사를 모시기가 어려워, 북미 근교에서 알아보던 중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의 씨애틀과 워싱턴 집회 사이에 주중 스케줄이 몇일 비어 있던 상황이라 성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사 일정에 저희가 빌려쓰고 있는 호프 교회의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매교회처럼 가까이 지내는 주빌리 교회와 연합으로 부흥회를 개최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주빌리교회는 가을에 부흥회 계획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자 기꺼이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해외에서 강사와 시간과 공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흥회를 개최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공간과 재정이 없는 작은 교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회복과 각성의 부르심으로 알고 열심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흥회를 위한 홍보와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 각성의 때마다 각 지역의 부흥회를 통해 영적 지형과 판도를 바꾸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 | 교회 조직 |

### [운영위원회]

유성민 장로  
김준영 장로  
조성은 집사

### [사역위원회]

사역팀장: 신용규 목사  
운영위원장: 유성민 장로  
예배팀장: 김준철 집사  
관리팀장: 오종길 집사  
행정팀장: 서지민 집사  
재정팀장: 김난형 권사  
친교팀장: 김주옥 집사  
선교팀장: 김현준 집사  
새가족팀장: 김현주 집사  
다음세대팀장: 유진우 집사

### [목장]

God's will 목장(목자: 유성민)  
늘푸른 목장(목자: 김준영)  
서로인 목장(목자: 유진우)

### [한사랑 Sisters]

회장: 김미나 권사  
서기: 서지민 집사  
회계: 임형선 집사

### [한사랑 Dreamers]

회장: 오종길 집사  
총무: 이영수 집사

### [한사랑 청년부]

멘토: 김현준 집사 & Anna Bomhof

## | 오늘의 말씀 |

## “잃어버린 첫째 아들”

눅 15:25-32

### 들어가는 이야기

- ‘잔치’하면 떠오르는 것
- 예수님 시대의 ‘잔치’
- 당시 잔치 문화와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

### 성경 이야기

- 누가복음 15장의 배경: ‘잔치’
- 세 가지 비유를 말하다
-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가?
- 결정적 단서: 누가복음 15장 1-3절
- 3절의 ‘그들’은 누구일까?
- 누가복음 15장의 클라이맥스: 탕자의 비유
-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일까?
-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비되는 첫째 아들
- 교회 안의 잃어버린 영혼들

### 나가는 이야기

- 진정한 회개
-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자

### 묵상을 위한 질문

-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일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 스스로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